

<요 약>

1.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과정과 절차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양당의 후보 선출'과 '양당 후보간의 본 선거'라는 두 개의 독립된 과정으로 구분됨
- 양당 후보 선출은 당원 중심의 전통적 방식(코커스)과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방식(예비선거)에 의해 이루어짐
- 전당대회는 각 당 후보를 공식 선정함으로써, 본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수행함
- 9월, 10월 두 달의 본 선거전을 거쳐 11월 5일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각 주별로 '勝者全取' 방식에 의해 결정됨

2. 선거 현황

- 현재는 양당 후보 선출 과정이 막 시작한 단계로서, 4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 후보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경선 시작 전에는 온건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원로 밥 돌의 승리가 확실시되었으나, 고령의 나이,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의 약점이 지적되면서 그가 클린턴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점차 확산되었음
- 선거전 초반 물량 공세로 놀라운 약진을 보였던 포브스는 낙태 금지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진보적 태도로 인해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
- 자신만이 클린턴을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는 중도 보수주의자 알렉산더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계기로 급부상했으나, 조직력과 자금력의 부족으로 지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적 극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중주의자 뷰캐넌은 현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3. 선거 전망

- 공화당 후보 경선은 둘의 당선이 유력시됨
 - 포브스는 낙태 등 사회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와 금권정치 및 부정적 광고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
 - 뷰캐넌은 그의 극우주의적 입장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어려움
 - 알렉산더는 자금력과 조직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지지도가 급락, 조만간 사퇴할 가능성이 큼
 - 둘은 가장 무난한 후보라는 인식과 조직력, 자금력을 바탕으로 초반의 고전을 만회, 그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 본 선거에서는 클린턴의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공화당 후보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예측은 별 의미가 없음

4. 정책적 시사점

-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는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선거 기간 중 미국 대외정책은 일반적으로는 방어적이나,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짐
- 본 선거가 치러지는 11월까지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어적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 선거 결과 공화당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다 할 지라도,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구체적 정책 방향은 다소 변할 수 있으며, 공화당 행정부의 경우 보다 강경한 대북한 정책, 그리고 다소 약화된 대한국 시장 개방 압력을 예상할 수 있음

I.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과정과 절차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양당의 후보 선출'과 '양당 후보간 본 선거'라는 두 개의 독립된 과정으로 구분됨

- 미국 대통령 선거는 크게 두 개의 독립된 과정으로 구분됨
 - 첫째는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 선출 과정으로, 2월부터 6월까지 각 주별로 이루어짐
 - 둘째는 양당 후보간의 대결인 본 선거로서, 8월 전당 대회부터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이번에는 11월 5일)의 투표일까지 계속됨

양당 후보 선출은 예비선거와 코커스라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짐

- 양당 후보 선출의 두 방식: 예비선거와 코커스
 - 예비선거(primary)는 20세기 초 진보주의 및 개혁 운동의 결과로서 새롭게 등장한 후보 선출 방식임
 - 예비선거는 크게 당원만이(대부분의 주에서 투표시 자신이 당원임을 천명하기만 하면 당원으로 인정해 줌) 참가하는 폐쇄(closed), 그리고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open)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짐
 - 주민 대다수가 직접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후보 선출 방식으로 알려짐
 - 현재 과반수 이상의 주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제일 먼저 실시되는 뉴 햄프셔 주의 예비선거는 언론의 스포트 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음
 - 코커스는 예비선거와는 달리 정당과 당조직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후보 선출 방식임
 -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 군 단위의 당원들이 모여 후보자들과 그들의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시 단위 회의에 나갈 대의원을 선출하고, 최종적으로 주 단위에서 각 후보별 대의원을 선출함
 - 비록 참여 범위에서 제한적이거나, 관심있는 당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비민주적인 제도는 아님
 - 당원들간의 직접 토론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비선거보다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에 더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아이오와를 비롯한 소수의 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양당의 전당대회는 후보를 공식 선정함으로써, 본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 전당대회: 후보의 공식 선정과 본 선거의 시작
 - 예비선거 및 코커스를 통해 선출된 51개 주 대의원들은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함
 - 양당의 전당대회는 전통적으로 8월에 개최됨
 - 이번 선거의 경우, 공화당은 8월 12~15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8월 26~2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함
 - 전당대회의 의미는 본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 물론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언질했기 때문에 양당 후보는 전당대회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이 상례임
 - 그러나 전당대회는 이를 공식화하면서 당 단합을 꾀하는 축제의 장으로써, 본 선거의 시작을 알린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음

9월, 10월 두 달의 본 선거전을 거쳐 11월 5일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각주별로 '승자전취' 방식에 의해 결정됨

- 본 선거 과정: 투표 및 당선 확정
 - 전당대회를 신호로 양당 후보(드물게는 독자적 제3후보)간의 본 선거 과정이 시작됨
 - 본 선거전은 9월과 10월 두 달을 거쳐 11월초 투표일까지 계속됨
 - 투표일은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선거의 경우는 11월 5일임
 - 투표 결과는 각 주별로 결정되며, 승리한 후보가 그 주 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얻는 소위 '勝者全取'(winner-take-all)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총선거인단 표의 과반수 이상(즉, 538표 중의 270표)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함

II. 선거 현황

현재는 양당 후보
선출 과정이 시작
한 단계로서, 공화
당 후보 선정에 관
심이 집중되고 있
음

- 현재는 양당 후보 선출 과정이 시작한 단계
 - 민주당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도전자가 없어 그의 재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음
 - 공화당은 밥 돌(Bob Dole) 상원의원, 출판업 거부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 언론인 출신 팻 뷰캐넌(Pat Buchanan), 테네시 주지사 출신 라마 알렉산더(Lamar Alexander) 등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는 공화당 후보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선거전 초반에는
온건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원로 밥 돌의 승리가
확실시되었음

- 선거전 초반에는 돌의 승리 확실시
 - 돌은 공화당 후보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72세)로서,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를 역임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3번째 출마하는 화려한 정치적 경력의 소유자임
 - 또한 그는 팻 뷰캐넌, 필 그램 등과는 달리 교조주의적 보수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타협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온건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음
 - 게다가 그가 두려워하던 경쟁 상대들, 즉 콜린 파웰(Colin Powell), 잭 캠프(Jack Kemp), 딕 체이니(Dick Cheney), 댄 퀘일(Dan Quayle) 등이 모두 출마를 포기, 정치 평론가들은 일찍부터 그의 승리를 점쳤음

고령의 나이, 미래
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의 약점이 지적
되면서, 그가 클린
턴을 이길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점
차 확산되었음

- 돌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의문
 - 클린턴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 대한 대응 연설에서 돌이 보여 준 무미건조함과 딱딱함은 (미국 ABC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됨) 많은 이들을 실망시킴
 - 그 때부터 고령의 나이, 그에 따른 스태미나 부족,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 그리고 워싱턴 정치에 너무 익숙하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기 시작하였음
 - 과연 그가 베이비 붐 세대로서 젊고 패기에 찬 클린턴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정치 평론가와 공

화당원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었음

- 이러한 의문은 초반 경선에서의 부진으로 나타남
 -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1위(26% 득표율)를 차지했으나, 2위 뷰캐넌과의 격차가 3%에 머물렀다는 점, 또 1988년 경선 때 그가 아이오와에서 보여주었던 38%의 득표율을 감안한다면, 이는 실망스러운 결과임
 - 뉴 햄프셔 예비선거에서도 뷰캐넌에게 1위를 빼앗기고 2위(26% 득표율)에 그침
- 그러나 그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예비선거에서 1위(45% 득표율)를 차지하는 등 만희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선거전 초반 물량 공세로 놀라운 약진을 보였던 포브스는 낙태 금지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진보적 태도로 인해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

○ 포브스의 초반 약진과 쇠퇴

- 선거전 초반 놀라운 약진을 보인 것은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를 출판하고 있는 거부 포브스였음
 - 그는 풍부한 자금을 TV 광고에 대량 투입함으로써,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음
 - 특히,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17% 단일 세율은 뉴 햄프셔를 비롯한 동부 지방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음
- 그러나 낙태 금지 등 사회 문제 등에 대한 그의 애매 모호한 태도와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광고로 인해, 중남부 등 농업지역의 종교적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음
 - 아이오와 주에서는 막판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의 반발로 인해 4위(10%)라는 실망스러운 득표에 그쳤음
 -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한때 1위를 차지했던 뉴 햄프셔 예비선거에서도 4위(12%)에 그침으로써, 그의 약진은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의 델라웨어 및 아리조나 예비선거에서는 뜻밖의 1위를 차지했으나, 이를 통한 그의 재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자신만이 클린턴을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는 중도 보수주의자 알렉산더가 급부상하였으나 점차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음

- 당선 가능성을 강조하는 알렉산더의 급부상과 쇠퇴
 - 초반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온건 보수주의자 알렉산더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통해 급부상하였음
 - 알렉산더는 별다른 정책적 특징은 갖고 있지 않으나, 부드러운 이미지와 함께 그의 가장 큰 장점은 클린턴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인식임
 - 실제로 그의 배경을 보면, 남부 작은 주의 주지사(클린턴은 아칸소, 알렉산더는 테네시) 출신이라는 점, 교육 개혁에 성공했다는 점,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 등 클린턴과 매우 비슷함
 - 게다가 나이도 비교적 젊어(55세), 클린턴과 좋은 맞대결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초반 강력한 다크 호스로 떠오르며, 언론의 관심을 받음
 -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막판 부동표를 흡수, 18% 득표율에 3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냄
 - 뉴 햄프셔 예비선거에서도 뷰캐넌, 둘에 이어 3위(23% 득표율)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자금력과 조직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함으로써,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아리조나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의 부진(4위)으로 사퇴를 고려 중이라는 소문도 있음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적 극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중주의자 뷰캐넌이 현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극우적 대중주의자 뷰캐넌의 기대 이상의 성공
 - 뷰캐넌은 공화당의 이단자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극우적이면서도 대중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낙태, 동성연애, 종교 등 사회문제에 있어서 그는 극단적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대기업을 비난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변호하는 대중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며, NAFTA와 WTO에 반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뷰캐넌은 초반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음
- 아아오와에서 둘에 이어 2위(23% 득표율)를 차지함
- 가장 중요한 뉴 햄프셔 예비선거에서는 둘을 누르고 1위(28% 득표율)를 차지, 뷰캐넌 돌풍을 일으킴
- 최근 아리조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예비선거에서는 3위, 2위로 약간 부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뷰캐넌의 뜻밖의 성공은 전통적인 주류 공화당 지도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부시, 파웰, 김리치 등 공화당 주요 지도자들 거의 모두가 뷰캐넌의 당분열적이고 극단주의적인 노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뷰캐넌의 승리를 막기 위해 온건 보수주의자인 둘과 알렉산더의 연합을 추진하고 있음

<표 1> 주요 후보들의 분야별 정책 비교

후 보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이민자, 복지, 낙태 등)	대외정책 분야	종합 평가
클린턴	- 균형예산을 위한 세율 인상 필요성	- 복지 축소 반대 - 낙태의 헌법적 금지 반대	- 국제 무대 적극적 역할 - 자유무역과 함께 공정무역 강조(시장개방 압력)	- 중도적 진보주의
둘	- 균형예산을 위한 지출 감소는 물론 헌법 개정 지지	- 복지 축소 - 점진적인 이민자 감소 - 낙태에 대한 헌법적 금지(예외 규정 인정)	- 국제 무대 적극적 역할 - 자유무역주의 강조(WTO, NAFTA 찬성)	- 온건 보수주의
알렉산더	- 균형예산 강조	- 교육 개혁 강조 - 기타 쟁점에 대해서는 둘과 비슷	- 둘과 비슷	- 온건 보수주의
포브스	- 균형예산 강조 - 17% 단일 세율안	- 복지 축소 - 이민자 문제 현상 유지 - 낙태 등에 대한 진보적 태도	- 범세계적 자유무역주의의 실현(보호무역주의 반대)	- 경제적 보수주의(자유시장 신봉), - 사회적 자유주의
뷰캐넌	- 균형예산 강조 - 단일세율안 반대 - 대기업 비난(노동자 옹호)	- 복지 축소 - 급진적인 이민자 감소(5년간 이민 금지) - 낙태에 대한 절대적 반대(예외 규정없이 헌법에 의한 금지)	-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고립주의(개입 반대) - 경제적 민족주의(보호무역주의, WTO와 NAFTA 반대)	- 경제적 민족주의 - 도덕적 극보수주의 - 선동적 대중주의

III. 선거 전망

공화당 후보 경선은 돌의 당선이 유력시됨

- 공화당 후보 경선 전망: 돌의 당선이 유력
 - 현재 공화당 후보 경선은 돌, 뷰캐넌, 알렉산더, 포브스간의 4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포브스는 조만간 경쟁에서 뒤쳐질 전망이다
 - 초반 약진을 보였던 포브스는 동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낙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와 금권정치 및 부정적 광고에 의한 반감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의 인기가 급강하하고 있음
 - 지난 3월 5일(미니 슈퍼 화요일) 북동부 지역에서의 패배로 그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음
 - 뷰캐넌의 돌풍도 곧 사라질 전망이다
 - 뷰캐넌은 뉴 햄프셔에서 대단한 기세를 보였으나, 그의 교조주의적이고 극단적인 보수 성향은 30%에 달하는 고정표를 확보하는 대신에 대다수 온건 보수 주의자들의 등을 돌리게 하고 있음
 -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본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으로, 그의 극단적인 노선으로는 본 선거에서 클린턴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결국 그에 대한 지지는 점차 줄어들 것임
 - 3월 5일 동북부 지역 예비선거에서의 패배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 알렉산더는 조만간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초반 아이오와에서의 선전으로, 알렉산더는 돌과 비슷한 온건 보수주의자이면서도 클린턴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서 많은 주목을 끌었음
 - 그러나 자금과 조직력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뉴 햄프셔 예비선거 이후 점차 인기가 하락하고 있음
 - 3월 5일 예비선거에서의 패배로 그는 조만간 후보를 사퇴하고 돌의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큼

- 둘은 초반의 고전을 완전히 만회하고 당선이 거의 확 실시되고 있음
- 선거 초반에 확산되던 본 선거에서 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그보다 더욱 당선 가능성이 없는 극우주의자 뷰캐년의 돌풍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졌음
- 선거 중반에 들어서면서, 오랜 정치 경험과 경륜, 탄탄한 조직력과 자금력 등 그의 강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데가, 대다수 공화당 지도자들이 그의 지지를 표명하였음
- 3월 5일 동북부 지역 예비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데다가, 둘이 내심 가장 두려워했던 온건 보수주의자 알렉산더가 곧 사퇴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현재로서는 클린턴의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공화당 후보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별 의미가 없음

- 현재로서는 본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예측이 불가능함
- 현재로서는 공화당 후보로 누가 선정되든, 클린턴이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임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온 경제 상태는 (비록 많은 미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4년 전에 비해 호전되었으며, 클린턴의 인기도 상승세를 타고 있음
- 특히 이번 신년 연설에서 보여 준 그의 매끈한 말솜씨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실제로 뉴스위크 지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클린턴은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둘과의 예상 경쟁에서 52 대 43으로 앞서고 있으며, 뷰캐년, 알렉산더와의 경쟁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치로 앞서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앞으로도 너무 많은 변수가 놓여 있음
- 공화당 후보도 아직 공식 결정되지 않은 데다가, 엄

- 청난 대중적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파웰이 러닝 메이트로 공화당 티켓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또 한가지 중요한 변수는 그간의 경선 과정을 통해 드러난 공화당의 내부 분열상이 앞으로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임
- 게다가 화이트워터(Whitewater) 사건이 더욱 불거져 클린턴 진영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그 밖의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함
- 적어도 양당 후보의 공식 선정을 통해 본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8월의 전당대회가 끝나야, 본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있는 예측이 가능할 것임

<표2> 향후 주요 일정

일 자	사 건	비 고
3월 7일	뉴욕 예비선거	
3월 12일	슈퍼 화요일(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오리건, 테네시, 텍사스 등 남부 주의 예비선거)	- 텍사스가 가장 중요함 - 선거전의 윤곽이 드러남
3월 19일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중부 주의 예비선거	
3월 26일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등 서부 주	
8월 12-15일	공화당 전당대회(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
8월 26-29일	민주당 전당대회(일리노이주 시카고)	민주당 후보 공식 지명 (클린턴 선정 확실시)
11월 5일	대통령 선거	
1997년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	

IV. 정책적 시사점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는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 주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
 - 첫번째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미국의 대외정책은 어떠한 경향을 띠게 되며, 또한 이는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임
 - 두번째는 대통령 선거 결과 내년에 들어 설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할 대외정책의 방향과,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임
 - 한반도 및 동북아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음

선거 기간 중 미국 대외정책은 일반적으로는 방어적이거나,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짐

- 선거 기간 중의 미국 대외정책의 경향: 양면적 성격
 -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국외에서 별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며, 따라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소극적,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일단 미국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소위 '애국심 효과' (rally-around-the-flag effect)를 노리는 경향이 있음
 - 애국심 효과란 해외 적과의 대치 상황 하에서 미국 민이 보여주는 단결력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는 현상을 뜻함
 - 지난 2월 24일 쿠바의 미국 민간기 격추 사건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신속한 보복 조치 발표도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 그렇다고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자의적으로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 위기가 수반하는 위험도 크거나와, 자의성이 드러날 경우 엄청난 정치적 곤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임

본 선거가 치러지는 11월까지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어적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 본 선거가 치러지는 11월까지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방어적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 먼저 한반도에서 애국심 효과를 노리고 위기 상황을 유도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한반도 문제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위기 발생과 그에 따른 미군의 파병 가능성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기는 커녕 오히려 대외정책의 실패라는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붕괴나 무력 도발 등과 같은 돌발 사태가 발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력할 것임
 - 최근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은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도모하기 위한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수 있음

선거 결과 공화당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다 할 지라도,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대외정책의 예상 변화: 대외정책 기조는 변화 없을 듯
 - 이번 선거는 대외정책보다는 복지 문제 등 국내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외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별로 없음
 - 또한 후보들 대부분이 대외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표 1> 참조)
 - 유독 뷰캐넌만은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고립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전술한 대로 그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함
 - 당선 가능성이 큰 클린턴, 돌, 알렉산더 등은 모두 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 창출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 물론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현재 클린턴 행정부보다 덜 개입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차이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향이 있음
- 미국 대외정책은 대통령 개인이 결정한다기 보다는 의회, 관료, 이익집단 등 수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어진 규칙과 과정에 따라 결정됨
-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나, 자기 혼자서 대외정책의 기초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음
- 실제로 과거 미국 대외정책의 기초 변화는 어느 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가 하는 내부적 요인보다는 국제 상황의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왔음

그러나 구체적 정책 방향은 다소 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화당 행정부의 경우 보다 강경한 대북한 정책, 그리고 다소 약화된 대한국 시장 개방 압력을 예상할 수 있음

- 커다란 정책 기초는 유지된다 할 지라도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구체적 정책 방향은 다소 변할 수 있음
 - 공화당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현재보다 강경해질 가능성이 큼
 -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해 왔기 때문임
 - 대한국 정책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나, 경제·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 개방 압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군 주둔 등을 통한 한반도 안보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공화 양당 모두 인식하고 있음
 -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WTO 등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에 더욱 적극적이며, 따라서 경제 보복에 바탕한 쌍무적 차원에서의 시장 개방 압력에는 소극적임
 - 그러나 이러한 민주·공화 양당의 차이점도 국제 정치경제 상황이라는 더 중요한 요인 앞에서는 무색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이점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음

(김 욱)